

마지막 거리두기… 모임기준 완화에 ‘숨통’

위드 코로나에 기대 반 우려 반
자영업자 “영업제한 마지막이길”
매출 회복에 대한 기대감 드러내

양정선 기자

“완전히 풀린 건 아니지만, 힘이 좀 나네요.” 전주 금암동에서 남편과 고깃집을 운영하는 조모(여·45)씨의 말이다. 626일, 지난해 1월31일 전북지역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후, 조씨의 가게는 매 순간 폐업 위기에 놓였었다. 매출의 8할을 차지하는 대학생들은 비대면 수업으로 학교에 오지 않았고, 직장인들도 감염 예방을 위해 재택근무 등을 하면서다. 여기에 영업시간·모임인원 제한까지 겹치면서 가게 매출은 오를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경제적 부담에 알바생 4명은 전부 해고했고, 돈을 벌기위해 오후 5시에 열던 가게는 오전 11시부터 손님을 받았다.

조씨는 “모임인원 제한도 완화되고, 영업시간도 조금 늘어 다행이다”면서 “위드코로나가 시작되면 전처럼 24시간 내내 손님도 받고, 영업제한 때문에 맘 쏙이는 일도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단계적 일상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를 앞둔 마지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오늘(18일)부터 시작된다. 도내 사적모임 기준은 백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10명, 음식점 등의 영업시간은 밤 12시까지 확대된다. 단 백신 접종 완료자가 없을 경우 모임은 4명만 가능하다. 이 같은 방침에 자영업자들은 매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전주 송천동에서 맥줏집을 운영하는 장모(38)씨는 “가게 특성상 손님들이 1차를 마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매출 회복에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완화된 거리두기 조치를 반겼다.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면 지금보다 장사가 더 잘 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전북대 대학로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김모(50)씨는 “이 고비만 넘기면 24시간 자유롭게 영업하게 될 것이라 믿는다”면서 “당분간은 사람들이 자발적 거리두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3개월은 넘기지 않을 것이라 본다”고 했다.

2년 가까이 이어진 거리두기에 치진 이들도 반기는 분위기다. 김모(여·28)씨는 “감염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방역수칙만 잘 지킨다면 문제없을 것”이라며 “위험을 감수하고 백신을 맞은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조치는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도 공립 중등 교사 434명 선발

전라북도교육청은 2022학년도 공립 중·고등학교 교사 434명(장애 39명)을 선발한다고 17일 밝혔다. 선발예정 과목은 총 29개 과목으로, 국어 28명(장애 2명), 체육 27명(장애 2명), 수학 24명(장애 1명), 영어 23명(장애 1명), 도덕·윤리 22명(장애 1명) 등이다. 또 보건교사 33명(장애 3명), 사서 18명(장애 2명), 전문상담 59명(장애 5명), 영양교사 31명(장애 3명)이다.

응시원서 접수 기간은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며, 전라북도교육청 중등온라인채용시스템에서 인터넷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

1차 시험(교육학, 전공, 한국사)은 다음 달 27일에 실시하며 2차 시험은 내년 1월 19일과 25일, 26일에 진행된다. 최종합격자 발표는 내년 2월 10일이다. 기타 자세한 임용시험 시행사항은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현철 기자



‘행동으로 실천하고 새로운 변화 이끌 교육’

도교육청, 지구쓰담 환경 캠페인

전북도교육청은 학생들의 능동적 참여를 통한 실천 중심의 기후행동을 확산하고자 사제동행 환경동아리와 함께 ‘지구쓰담! 환경캠페인’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지구쓰담’은 ‘지구의 쓰레기를 담다’라는

의미와 ‘소중한 지구를 쓰다듬다’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오는 22일까지 온라인 인증을 통해 진행된다. 학교·마을·지역사회 등에서 쓰레기 줍기 또는 쓰레기 분리수거 활동을 진행하고 활동 전후 사진을 찍어 도교육청 누리집에 탑재해 인증하는 방식이다. 앞서 전주화산초 환경동아리는 과학시간에

지구 살리기 환경보호 표어를 만들고 학교 주변 쓰레기 줍기를 진행했다. 특히 활동 이후 시원한 음료수를 일회용품이 아닌 개인컵(용기내 캠페인)에 담아 마시는 것까지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행동으로 실천하고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온라인 캠페인에 참여한 모든 동아리에는 친환경 간식 또는 친환경 물품을 지원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공현철 기자

전주시 공노조 찬성 요건 못 채워… 민노총에 남는다

김문영 지부장 “조합원 마음 읽지 못했다” 사퇴 표명

전국공무원노조 전주시지부가 민주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 소속으로 남게 됐다. 지난 14~15일 양일간 이뤄진 ‘민노총 및 전공노 탈퇴·조직형태변경’ 찬·반 투표에서 찬성표가 투표자의 3분의2 이상을 넘기지 못하면서다. 투표 후 김문영 지부장은 “지부장으로서 결정한 선택이 조합원의 생각에 미치지 못했다”며 사퇴의 뜻을 밝혔다.

17일 전주시 등에 따르면 조합원 1,651명이 참여한 이번 투표 결과 찬성 887표(53.7%),

반대 735표(44.5%), 무효 29명(1.8%)로 부결됐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과 ‘전주시지부 운영규칙’에는 전체 조합원 절반이 투표를 참여하고, 3분의2 이상이 탈퇴를 희망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앞서 전주시지부 집행부는 조합원 보호와 권익보호, 복지증진 미흡 등을 이유로 민노총 전공노 탈퇴 및 조직 전환을 추진해왔다. 이에 민노총 전공노는 권한정지 통보와 반조직행위 중단명령을 내렸고, 지부 내에서도 ‘사수위’를 조직해 반대하

는 등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다. 김문영 지부장은 입장문을 통해 “조합원의 보호와 권익보호, 복지증진에 미흡하다고 생각돼 조직전환을 위한 총투표를 결심했지만 조합원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면서 “결과를 존중한다. 조합원의 마음을 읽지 못한 것으로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당연하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결정이 전주시지부가 새롭게 변화되는 출발점이라고 응원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주시지부가 현행 체제를 유지하면서 도내 14개 시·군 중 민노총 공노조 소속은 남원과 부안, 순창, 장수, 무주 등 6곳이다. 전북도는 한노총, 나머지 시·군은 별도 독립노조로 활동하고 있다. /양정선 기자

국립대 인권센터 예산·인력 천차만별

전북대와 서울대 예산 90배 이상 차이

전국 11개 국립대학교가 운영 중인 ‘인권센터’의 전담인력과 예산이 큰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강득구 의원이 전국 11개 국·공립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대학별 인권센터 예산은 무려 90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특히 전북대와 인천대와 각각 1,370만원과 1,374만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인 반면 서울대는 12억3,528만원이 반영됐다.

전담인력도 전남대와 전북대, 인천대는 각 3명을 배치한 가운데 서울대는 13명으로 4배 이상의 현격한 격차를 보였다.

또 대학의 인권센터장은 모두 보직 교수 신분으로, 학내 수업을 겸하며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지난 3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 3월부터 모든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 의무화된다. 전국에 설치될 약 400여 개 대학인권센터가 내실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예산과 전문인력 확보는 물론 전문성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강 의원은 “학내 인권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인권교육, 인권 실태조사 등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와 전문인력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대학 인권센터가 독립성을 확보하고 역할을 강화해 안정적 정착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현철 기자

김제시 진봉면 새만금간척지서 연근재배 첫 결실



김제시 진봉면 365영농조합이 진봉지역 새만금간척지 염기를 이겨 낸 연근의 첫 수확이 한창이다.

이 연근의 첫 수확지는 지난 2017년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새만금 농업특화단지내 23ha를 시험영농을 위해 임대 후 간척지 특성상 염기와 유기물 부족으로 농산물 재배에 역경에 처했던 곳이다.

특히 농산물 재배가 어려운 이곳에서의 연근 실증 시험 재배를 통한 각고의 노력으로 결실로 이뤄져 첫 수확의 기쁨은 더했다. 지난 2018년부터 염기를 제거하기 위한 특별한 제염 작업과 함께 염기

에 강하면서도 경계성이 있는 연근을 택한 것이다. 이 영농조합은 올해 1ha에 대한 시험재배 성공으로 내년부터 재배면적을 늘려 2025년에는 임대농지 전 면적에 연근을 재배를 통한 새만금을 대한민국 연근 생산 메카로 꾸려나갈 계획이다.

김영훈 365영농조합법인 대표는 “연근은 연중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득이 안정적이고 부가가치가 매우 높으며, 그간 수많은 인고 끝에 연근재배가 성공의 결실을 맺게되어 매우 기쁘다”고 밝혔다.

오승영 진봉면장은 “이번에 지역 내에서 연근 재배에 성공한 것을 토대로 연근재배가 진봉지역의 농업특성을 반영한 벼 대체작목으로 자리잡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연근은 벼에 비해 약 2배 이상의 농업소득을 올릴 수 있는 효자 작목으로 수도작 중심의 농법을 탈피하여 쌀의 수급안정과 농업소득 향상에 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김제=백용규 기자

새전북신문 문학상에 도전하세요!

새전북신문이 대한민국의 문학인들과 문학동호인들의 문학정신을 기리고
역량 있는 작가들의 창작 의욕을 높이고자 새전북신문 문학상을 공모합니다.

응 모 자 격 전국의 기성 문인과 문학 애호가

시 상 구 분 대상1명, 작품상2명

시 상 내 용 대상·상패와 상금 200만원,
작품상·상패와 상금 각 100만원

응 모 부 문 2015년 8월 이후 발행한 수필집,
또는 대표작 3점

응 모 자 격 자전 및 타전
(동일 작품집으로 이중수상 불가)

제 출 서 류 수필집1권 또는 수필3편(2백자 원고지 10~12매)
과 문학 관련 활동 사항 1매

제 출 기 간 2021년 11월 5일
(마감일까지 도착분)

접 수 처 (우)54916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28(인후동)
새전북신문빌딩 4층 (새전북문학상운영위원회)

수상자 발표 추후발표

후 원 육육결즈

기 타

- ① 응모 작품집 또는 수필3편과 함께 문학관련 활동사항을 A4용지 1매 분량으로 작성해 제출 [생년월일, 등단연도, 등단지, 작품집명, 문단활동, 수상경력 및 연락처 등을 반드시 표기하여 등기로 우송할 것]
- ② 접수된 서류 및 수필집은 반환하지 않음
- ③ 수상자 특집으로 새전북신문에 게재 예정

새전북신문 문학상 운영위원회

